

자긍심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미래 어업시설을 설계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장

“어촌어항협회” 직원 여러분!
 해양수산부 차관보로 재직하다가 공직을 떠난후 정부와 민간을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협회가 추진해 온 21세기 어촌·어항·어장의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연안역의 종합

발전과 수산업의 기반구축의 사업들을 알차게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간 여러분들께서는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유능한 회장님들과 함께 살기좋은 어촌건설과 국가균형을 이루고자 묵묵히 땀 흘리며 노력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촌어항협회”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다의 환경보전과 어촌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협회에 대한 어업인 나아가 국민의 기대와 바램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협회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그동안 추진해 온 노력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자세와 전략을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역량 강화와 기능의 재조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촌·어항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와 기술의 보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기술 교류협력과 연구조직을 강화하고, 기능도 어촌중심에서 어업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어항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항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항내 토사매물 등 어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어항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항 및 연안수역의 환경개선입니다. 어항, 어장의 폐기물 수거 등으로 해양환경을 정화하고, 어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확립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촌·어항의 관광진흥 및 문화창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촌·어항·어장의 관광 상품화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전통 어촌문화의 발굴 및 홍보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지역 대상 관광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어촌·어항 관광 연계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산기반 조성 업무 수탁의 확대와 자체 수입의 활성화로 자립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항시설 배후부지 활용, 다기능수거선의 수익사업활용, 바다여행 사이트의 운영활성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어장의 영역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행이 어려운 수산 기반업무를 협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과감한 체제 개선으로 협회의 브랜드를 제고 하겠습니다.

“어촌어항협회”가 일 잘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여러분이 수산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해양수산 환경은 냉혹하게도 우리에게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업인 나아가 국민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철저한 자기관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변화된 모습으로 수요자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드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직원 여러분간의 인화단결입니다.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벽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람의 마음과 정이 통하는 가족과 같은 따뜻한 “어촌어항협회”의 식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어항협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기좋은 어촌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어촌어항협회”가 국내 최고의 수산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출항의 뜻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장을 서겠습니다. 비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한데 모아서 현안사항을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하면서, 미래 어촌어항의 전략을 다듬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촌어항협회”의 가족으로서 자긍심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미래 어업시설을 설계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취임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